

다문화가정의 가족응집력과 가족적응력 및 아동의 학교탄력성 간의 관계 - 농촌 국제결혼자녀를 중심으로 -

이 양 희(성균관대학교 교수) · 황 소 영(성균관대학교 박사과정)
김 진 희 · 이 혜 숙 · 윤 보 람(성균관대학교 석사과정)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의 가족응집력과 가족적응력 및 학교 탄력성을 비교해보고, 다문화가정 아동이 지각하는 가족응집력과 가족적응력 및 아동의 학교탄력성 간의 관계를 규명해봄으로써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 적응 측면에서 가족의 영향을 확인하고 중요성을 밝히는데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 아동의 강점을 발견하여 학교생활적응을 돕는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전라도 농촌지역의 다문화가정 아동이 재학 중인 초등학교 3곳을 대상으로,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로 이루어진 다문화가정 아동 57명, 일반가정 아동 46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총 84명으로, 다문화가정 아동 49명, 일반가정 아동 35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아동이 지각하는 가족응집력과 가족적응력을 측정하기 위해 Olson과 Portner, 그리고 Lavee(1985)의 가족기능평가척도(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 FACES III)를 한상분(1992)이 우리나라 아동의 수준에 맞는 단어를 사용하여 수정·보완한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가족응집력과 가족적응력 각각 10문항으로 총 20문항이다. 아동의 학교탄력성을 측정하는 도구는 박현선(1998)이 최초로 개발한 뒤 류재중(2007)에 의해 수정·보완된 학교탄력성 척도로, 학교에 대한 흥미, 규범준수, 학업태도와 같은 3개의 하위요인과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자료를 바탕으로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빈도와 백분율, Cronbach's α 계수, t검증, 그리고 Pearson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 아동이 지각하는 가족응집력과 가족적응력은 일반가정 아동이 지각하는 가족응집력과 가족적응력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가정 모두 평균 이상의 수준에서 비슷한 정도를 보였다. 둘째,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탄력성은 일반가정 아동의 학교탄력성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두 집단 모두 평균 이상의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셋째, 다문화가정 아동이 지각하는 학교탄력성은 아동의 가족응집력 및 가족적응력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 아동이 지각할 때 가족응집력이 높을수록 학교에 대한 흥미가 높았고 학교의 규범을 잘 준수하여 학교적응에 도움이 되었다. 또 가족적응력을 높게 지각할수록 학교의 규범을 잘 준수하였고 학업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학교적응도 잘 하고 있었다. 본 연구결과,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탄력성은 일반아동의 학교탄력성과 비슷한 수준을 보여 비교적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새로운 가족 형태인 다문화가정이 가족 간의 응집과 적응을 잘 할수록 아동이 학교생활의 적응에서도 더 탄력적일 수 있다는 결과로 인해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탄력성을 설명하는데 가족의 응집력 및 적응력이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아동이 학교생활에서 탄력성을 보이고 잘 적응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그 가족의 적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며, 특히 부부관계 및 어머니 적응을 위한 적절한 지원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